다음달 車보험료 인상…절감방안 5가지

요일제 보험 들면 8.7% 깎아준다

카드 포인트 활용하고 보험료 비교가입 부담 최소화

다음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차보험료가 오른다면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요일제 자동차 보험가입, '카드 포인트 활용', '보험료 쇼핑'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해보험협회와 관련업계가 제시하는 자동차보험료 절감 방안을 소개한다.

◇ 보험료, 쇼핑은 필수 =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코너가 있다. 여기서 차종, 연령, 운전자 범위, 성별 등을 입력하면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알 수 있다.

또 보험 경력, 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각 개인의 보험료를 회사별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하반기 가동된다.

◇ 요일제 보험 관심 가져야 = 요일제 자동차보험은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를 8.7% 깎아주는 보험 상품이다.

주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만 차를 모는 운전자에 걸맞는 절감안이다. 최근에는 메리츠보험이 요일제 보험 가입에 필요한 5만원짜리 단말기를 무상 임대까지 해주고 있다.

◇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라 = 보험사와 제휴한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하이카다이렉트에 가입하는 고객은 '현대카드M'의 포인트를 쓰면 3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KB포인트리카드'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후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부액을 줄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평소 사용하는 카드와 제휴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들어 포인트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도 좋다.

◇ 운전자 수를 줄여라 =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가족 한정특약은 80~85만원, 부부 한정은 75, 1인 한정은 70 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는 가족이나 부부로 해 놓고도 주로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보험료 절감이다. 사고를 내지 않고 한해를 지날 때마다 보험료는 저절로 낮아진다. 무사고 경력을 11년간 유지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처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반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5~20%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수중 패션쇼' 환상

22일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광장에 설치된 대형 수조에서 싱크로나이즈드 패션쇼를 열고 있다. 전·현직 선수들이 한복디자이너 박술녀씨의 작품과 이 백화점의 가을·겨울 트렌 /연합뉴스

광주중앙신협, 담양신협 합병

광주 중앙신협이 담양신협을 흡수·합병한다. 이 합병으로 지난해 6월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5개 조합이 통·폐합돼 91개 조합으로 줄게된다. 내년 상반기에도 신협 구조개선 작업이 예정돼 있어 조합간 통·폐합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담양신협은 전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동의제청 절차를 거쳐 광주중앙신협과의 합병을 최종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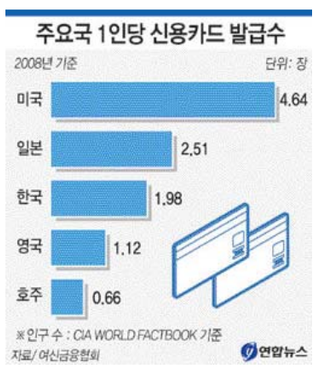
신협중앙회는 이들 조합의 합병에 따라 합병지원금 1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신협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2월께 광주중앙신협의 지점 형태로 새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7년 3월 출범한 담양신협이 창립 33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지만, 조합원 등은 그대로 승계돼 조합원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용카드 1억1천만장

1인 2장꼴…세계 3위



경기 회복 속에 신용카드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1억1000만장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는 1.98장으로 미국(4.64장), 일본(2.51장)에 이어 3위였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억1187만장으로 1년전보다 11.6%나 증가했다.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전체 인구 기준 2.2장, 경제활동인구 기준 4.4장으로 작년 6월말보다 각각 0.1장, 0.4장씩 늘어났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추석 차례상 18만원

이상저온탓 과일·채소값 껑충…작년보다 3.9%⬆

올 추석 대형마트를 통해 차례상을 준비하면 작년 추석보다 3.9% 많은 17만9020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롯데마트는 MD(상품기획자)들이 산지 시세 등을 바탕으로 추석(9월22일) 1주일 전의 제수품목 28개 가격을 추산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17만9020원으로 작년 추석 1주일 전의 17만2320원보다 높았다고 22일 밝혔다.

올 봄 이상저온과 장마철 잦은 비에 따른 과일, 채소 값 폭등이 차례비용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배(5개)가 작년보다 25% 오른 1만4500원, 사과(5개)와 단감(5개)이 작년 대비 각각 20.5%, 20.1% 오른 1만2000원과 5980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시금치(이하 400g 기준)는 18.3% 오른 2580원, 국산 도라지는 16.9% 오른 2280원, 깐 토란은 7.8% 오른 1380원에 각각 판매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MD들은 내다봤다.

황태포 1마리(60g)가 37.7% 가량 오른 5480원에, 명태 전감 1봉(500g)은 10% 오른 5480원에 판매되는 등 수산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유통업 추석선물 예약판매 돌입

백화점 특판팀 구성…평균 10~15% 할인

지역 백화점들이 추석을 한 달 여 앞두고 선물세트 특판팀을 구성하고 추석선물 예약 접수를 받는 등 추석 특수 잡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0일부터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13만~35만원에 판매되는 한우후레쉬 정육세트를 5%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20만~100만원선인 법성포 굴비세트와 10만~80원대의 전복세트는 10~15% 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다음달 5일까지 '2010년 추석선물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정육 갈비특호세트(4.0kg) 등 정육세트와 과일 세트 등은 5%, 와인세트를 비롯해 멸치·대하 등 선어세트는 10% 할인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27일까지 예약판매를 하고 한우·굴비·과일·건강식품·와인 등 선물세트를 10~2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8000만원 짜리 초고가 상품권세트를 비롯해 기업을 겨냥한 고가의 상품권 패키지도 구매액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중대형주 중심 매매 나서야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 논란에 따른 각국 증시의 반응이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주요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내림세를 기록한 반면 코스피 지수는 1.6% 이상 반등세로 마감했다. 특히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직전 고점 턱밑 수준까지 반등하면서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국내증시의 상대적 선방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주 증시흐름은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수저점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 될 것이며, 종목별 각개 약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주중에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에 따른 외국인 매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지수가 추가로 반등할 경우 고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규모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주에는 종목별 각개 약진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매매 대상을 압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로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과 전기차, 태양광,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수 반등이 달러 약세를 동반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금융주(은행, 증권)와 소재주, 내수주에 대해 공략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도 동시에 요구된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등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거나 악재 반영도가 덜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꼽힌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기금 등 기관 매수세 강화로 빠른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경감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 변수가 부정적일 경우 원화가 여타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의 수익 훼손이 일정수준 보존될 수 있다는 것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이유이다.

또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종목이 기술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선도업체라는 점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진출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 변신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